

16MDRAM 생산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은 최근 히타치사와 정액 50억円 및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16MD램 공정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지난 10월 11일 상공자원부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계약내용중에는 히타치사로부터 설계 및 자문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된 제품의 일정부분을 히타치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동사는 지난 7월 충북 청주공장에 8인치 웨이퍼 5,000매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했으며 내년 2월추가로 5,000매 가공설비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동사는 이와관련, 현재 가동중인 5,000매 라인에 히타치 기술자를 투입, 16MD램 공정을 셋업중이며 올해중 시제품을 출하할 방침이다.

사내 · 외 음성정보서비스
‘샘소리’ 개통
금성정보통신 (주)

최근 다양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는 음성정보서비스가 매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내 각종정보를 대내외 고객들에게 전화로 응답해 주는 음성정보서비스가 금성정보통신내에 개통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개통된 서비스‘샘소리’는 금성정보통신의 사내 각종 정보들을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주며, 사내외 고객들의 불만들을 청취, 접수해 처리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내 서비스와 시외 서비스, 사서함 서비스 등 3개로 분리되어 있어, 사내서비스(787-1810)에서는 사내 고객의 소리, 주택용자, 여권관리, 공제회, 통근버스 등 각종 사내 정보를 사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시외 서비스(787-1830)에서는 이 회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정보, 대금결제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서함 서비스(787-1825)에서는 ‘고객의 소리’란을 개설, 사내외 고객의 소리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신속하게 고객의 불마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이들 서비스중 사서함 서비스는, 사내외 고객들의 각종 불만 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항목별로 자동으로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대고객 서비스 품질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정확한 대금결제 및 어음조회 정보를 제공, 수백여개에 이르는 납품 및 협력업체들이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각종 결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정보에서는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상품 광고, 홍보 효과도 크게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HA 시스템 개발
금성통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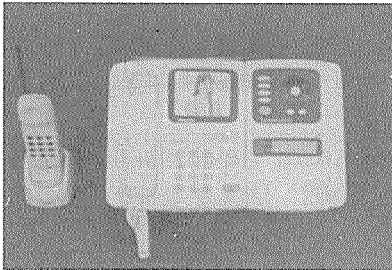
금성통신(대표 白重英)은 유·무선 전화기를 사용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리모컨으로 가전기기·조명기기·커튼 등을

업·계·소·식

제어할 수 있는 홈오토메이션(HA)시스템(모델명 금성홈메이트 GH-31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성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유무선통화로 집안 어느 곳에서나 국선·내선·도어폰·경비실 통화를 할 수 있는 가정통신망의 리모컨 제어기능의 채택으로 여러가지 리모컨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력선 제어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배선공사 없이 전원 콘센트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일반 전화기에 모니터기능을 장착해 카메라를 통해 방문객 확인 및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각 입주세대마다 별도의 배선이 필요한 기존 스타형 교환시스템 방식뿐만 아니라 중앙배선 하나를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버스(BUS)형 교환시스템 방식을 함께 채택한 겸용교환시스템 기능, 방범·화재·가스감지 및 비상경보 등 이상상태와 위급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첨단 안전 기능 등이 있다.



국내 첫 칠레 판매법인 설립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 表洵勳)가 중남미지역 수출전진기지로 각광받는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국내업체에서는 처음으로 판매법인을 설립, 이 지역 브랜드 세일을 본격화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칠레의 시그도 코페르스 그룹(Sigdo Koppers S.A)과 34 : 66의 합작으로 자본금 150만불을 투자 TV, VTR, 전자렌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오디오 등을 대우브랜드로 판매하는 종합 가전제품 판매법인(Decsa : DaeWoo Electronica Chile S.A)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전자의 表洵勳사장은 지난달 말 칠레를 방문, 시그도 코페르스 그룹(Sigdo Koppers S.A)의 본사에서 이 회사 라몬 아보이티즈(Ramon Aboitiz M.)회장과 합작판매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이 합작법인은 이번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 대우전자에서 생산되는 칼라TV, VCR, 세탁기 등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대우브랜드로 칠레 및 근접국가에 독점판매하게 되는데 대우전자는 3년간 총1,200만불의 광고비를 지원하여 입간판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와 신문, 잡지, 방송 광고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 및 제품광고에 주력할 계획으로 향후 3년 이내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칠레 국내시장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한 칠레내 전국망을 가진 A/S회사와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일정한 한도내에서 서비스 부품을 무상 공급키로 하고 현지 본사에 A/S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도 검사대, 수리대 등 첨단 A/S장비 설치, 현지채용 서비스 기술자 및 품질 관리 엔지니어 등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A/S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17
모스크바 판매법인

설립

대우전자 (주)

자본금 50만불을 투자, 단독법인으로 설립된 대우전자 모스크바 판매법인(DEMOCO : Daewoo Electronics Moscow Trading Company)은 칼라TV, VCR, TVCR, 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대우브랜드로 판매하게 되는데, 운영첫해인 내년 2,000만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30% 이상씩 매출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품판매를 위해 대우전자는 모스크바 시내에 약 40평방미터의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한편 대리점 및 직영매장을 확보할 계획인데, CIP 지원 및 관측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직영 A/S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장소 물색 및 서비스 인력 교육훈련, 서비스 장비조달 등 종합 서비스망 확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18
국내 최초로 전공장·

전제품 ISO 인증 획득

대우전자부품 (주)

대우전자 부품(대표 徐斗七)은 최근 안양, 정주, 구미에 있는 공장이 국내 최초로 전공장, 전제품에 대해 ISO 인증을 획득, 기술력과 품질보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됐다.

동사는 여의도 한신증권 B/D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인증서 전달식에서 전공장 전제품에 대해 영국의 품질보증인증 기관인 LRQA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로부터 ISO 9002 인증서를 받았다.

대우전자 부품은 ISO 인증요구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ISO 추진팀을 구성, ISO 인증획득을 위해 품질보증시스템 체계적인 정비에 들어가 지난 8월에 10일간에 걸친 심사를 받았었다.

대우전자 부품에서 제조되는 7개품목(전해 콘텐서, 탄탈 콘텐서, SAM Filter, HIC DY, FBT 튜너 & 모듈)전제품이 이번 ISO 9002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전자부품 품질에 대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우전자부품은 부품 생산량의 80% 이상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지역의 전자부품 시장에서 두드러진 수출신장세를 보여 왔는데 이번 ISO 인증으로 이들 시장에서의 전자부품 시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9
센서산업 본격 진출

대성전기공업 (주)

전자부품업체인 大星電氣(대표 朴齊範)가 센서 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 회사는 고부가가치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센서부문을 주력화하기로 하고 최근 압력센서를 국산화했으며

업 · 계 · 소 · 식

자동차용 각종 센서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향후 3~4년간 이 부문 연구개발에 30여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인데 이미 12명의 연구인력으로 센서전담 연구개발팀을 구성했다.

이 회사가 정부지원자금 3억 5,000만원 등 총 5억여원을 들여 최근 국내처음으로 개발한 압력센서는 자기온도보상형 압력계를 사용한 금속박막형 압력변환기로서 기존의 기계식 압력계에 비해 신뢰성과 정밀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산업용 공기압축기, 냉동기,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데 가스의 감지뿐만 아니라 제어기능도 있어 요업 화학공장 등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곳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구로공장에 이 제품 생산라인을 설치해 내년초부터 우선 월 2,000개씩 생산할 계획이다.

보급형 486 PC

공급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보급형 고성능 486PC(개인형컴퓨터)를 개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플러베사란 상품명으로 4가지 모델이 공급되는 이 제품은 미 인텔사의 486계열을 SX/25MHz-DX/66MHz칩을 CPU(중앙처리장치)로 썼으며 모두 베사로컬 비디오 보드를 기본으로 제공, 초당 최대 132MB의 고속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또 한글처리는 완성 및 조합형 어느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며 롬칩에 한글폰트를 저장, 한글처리속도가 한층 빨라진 점이 특징이다.

운영체제는 한글 MS-DOS 6.0이고 보석글 2.1 등의 소프트웨어 및 4MB의 메모리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모뎀용 고성능 IC 개발

삼성전자 (주)

IC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전화통화중에도 각종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모뎀용 고성능 IC를 개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사가 92년부터 1년간 4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사람의 목소리와 데이터신호를 구별하는 특수회로를 채용, 통화중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능했던 기존 모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모뎀간의 데이터신호를 대역 확산방식으로 변조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가청범위이하의 주파수대역으로 낮춰 음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 IC는 또한 음성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명확히 구분, 신뢰도가 높을 뿐아니라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도 가능한 점 등 각종 기능을 갖고 있어 외국제품의 국내시장진출을 사전봉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삼성측은 기대했다.

이 칩은 원격검침·원칙정보시스템을 비롯 각종 안전시스템과 신용조회단말기용 등 응용처가 넓어 해마다 30%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은 이 칩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응용제품 개발은 물론 디지털신호와 아날로그신호를 1개의 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칩제품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HDD 대체용
메모리 칩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할 수 있는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전기적으로 칩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지울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소자인 16메가 플래시 메모리를 일본 도시바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자체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전원을 꺼도 기억된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 메모리칩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고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 10~20개의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해 20~40메가 수준의 하드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배터리나 공간이 필요없고 전력소모가 적은 데다 고속프로그래밍이 가능해 미니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메모리 카드 등 컴퓨터제품은 물론 스틸카메라 전자게임기 등 각종전자기기에 쓰일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정보를 보존하는 롬(ROM)과 정보읽기 및 쓰기가 자유로 운램(RAM)의 장점을 갖춘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세계시장규모는 95년 23억 달러, 2000년 76 억달러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는 91년초부터 2년 8개월동안 25억원을 투자해 16메가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사가 개발한 16메가 플래시 메모리는 NAND(논리부정회로와 논리회로단자에 입력돼야 출력이 가능한 AND논리회로의 결합)형 제품으로 0.6미크론(머리카락굵기의 170분의 1)굵기의 회로로 연결된 복합금속산화막반도체(CMOS)제품이다.

16메가 플래시 메모리의 정보접근속도는 80나노초(1나노초=10억분의 1초)이며 5V단일 전압을 사용하는 44핀 박막형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고정세 CDT 전용
공장 준공**
오리온전기 (주)

오리온전기(대표 임길용)가 고정세 컴퓨터용 칼라브라운관(CDT : Color Display Tube)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지난 10월 16일(토) 구미공단내 오리온전기 본사 공장 현장에서 준공 기념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 고정세 CDT 전용 공장은 14인치 CDT와 15인치, 17인치, 21인치 등 FS(Flat Square : 평면사각)

타입의 CDT를 매월 10만대, 연간 120만대 규모로 동시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보급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컴퓨터용 칼라브라운관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리온전기가 총공사비 6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이 공장은, 부지면적 2만 3,000평에 건물면적 8,700평으로 지난 '9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5월 동력 및 건축설비 공사를 끝내고 그간 설비 시운전과 제품평가를 진행시켜 왔다.

특히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CDT제품은 기존 CDT에서 사용하던 전자총보다 화면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엑셀런트 전자총(Excellent Gun),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 변화가 거의 없어서 색의 변색을 한층 감소시킬 수 있는 인바마스크(Invar Mask)등을 채용한 첨단 고품위 제품으로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전기는 이에 따라 앞으로 대우전자와 연계하여 CDT제품의 국내시장 확대는 물론 수출에서도 기존시장의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고정세 CDT 전용 공장의 준공으로 오리온전기는 주력제품인 칼라브라운관 생산능력을 종전의 연간 800만대 규모에서 연간 920만대 규모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일곱번째의 칼라브라운관 생산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로터리 엔코더
개발**
(주) 오토닉스

센서류 및 제어기기 전문업체인 오토닉스(대표 박환기)가 기존 바퀴형 제품을 보완한 로터리 엔코더를 개발, 공급에 나섰다.

엔코더는 길이, 회전물체의 회전속도, 가속도,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로 공장자동화시스템에 활용되는 제품이다.

오토닉스는 센서류의 수입품이 범람하는 데 대비, 수입대체를 위해 로터리 엔코더를 개발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의 바퀴형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소형 고분해능력을 지닌 제품이다.

특히 저소비 전력형이며 수용가능한 직류전압이 4.75~30볼트에 이를만큼 광범위한데다 견고한 메탈슬릿판으로 제작돼 진동과 충격에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위치, 회전수, 속도, 거리의 검출이 용이하며 포장기계, 시트류 생산기계 등 일반산업용 기계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포터블 디지털
계측기 시판**
홍창물산 (주)

전자계측기 생산업체인 홍창물산(주)(대표 손정수)이 오실로스코프와 멀티미터, 그리고 회로분석기의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의 전자식 계측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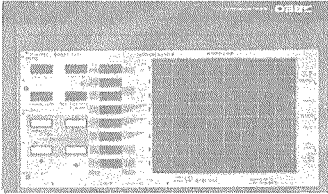
이 회사는 2년간 1억 7,000여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다기능의 디지털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모델명 3850)를 개발하고 시판에 나섰다

밝혔다.

이 제품은 전자기기의 주파수를 측정, 파형으로 나타내는 오실로스코프와 전류·전압·저항의 양을 측정하는 멀티미터기,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회로분석기(로직 애널라이저)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기존 오실로스코프가 브라운관을 사용하는데 비해 이 제품은 액정화면(LCD)을 채용, 크기가 기존제품의 5분의 1에 불과해 휴대용으로 적합하다.

이와함께 프린터 및 PC와 연결, 분석내용을 문서화할 수도 있다.



**PS업계 최초로 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한남화학 (주)**

국내 최대 PS(폴리스티렌)수지 제조 업체인 미원그룹의 한남화학(주) (대표 이덕립)은 최근 미원식품(주)과 PSP(발포스티렌 시트 발포체)업체인 부림포리마(주)와 공동으로 2년여 연구 끝에 분해성 EPS(발포 폴리스티렌, 일명 : 스티로폼) 및 PSP(폴리스티렌 시트 발포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존의 플라스틱 발포체는 일반 자연 조건하에서 분해되지 않지만, 이번에 한남화학에서 개발한 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분해 속도가 1백~5백배 이상 빨라 약 10년 이내에 완전 분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동사는 최근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하여 지난 5월 울산공장에 회수 및 재생시설을 갖춘바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지난 91년 8월부터 시작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분해성 EPS 및 PSP는 생분해성을 갖는 천연 고분자(전분)와 자동 산화제가 함유된 분해 첨가제를 범용 기능에 도입시켰다.

분해 속도 측정 실험결과, 이 발포체는 기존의 플라스틱 발포체보다 분해속도가 100~50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압출, 발포 가공기를 바꾸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성형 재료로서 일반 ESP 발포체 및 PSP 발포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정 배율까지 발포가 가능하며, 형내 성형시 임의의 성형체를 얻을 수 있다.

사용 용도는 경량성, 가공성, 부력성 등이 뛰어나 식품 및 과일 등의 일회용 포장 용기 또는 전기, 전자, OA등의 포장 완충재 및 운반상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해성 수지의 조건은 사용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기계적, 화학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용 후에는 토양이나 해수 등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환경에 환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재 포장재로 사용되는 EPS의 국내 수요가 연간 약 4만t을 넘어

업·계·소·식

이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생분해성 발포체 기능 개발은 그 의미가 크다.

반도체산업

주력 사업화

한국전자 (주)

한국전자(대표 박정소)가 그동안 전자기기부문에 비해 규모가 적었던 반도체부문사업을 내년부터 주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동사는 최근들어 TV 등 전자기기의 수출이 침체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분야가 호조를 보이자 내년에 반도체분야에 360억원의 설비투자를 하는 등 반도체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파워트랜지스터·액정화면(LCD) 등 반도체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자동화 및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TV·전자키보드 등 전자기기의 매출액이 8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반도체부문 매출액을 앞질렀으나 지난해부터 미국에 대한 전자기기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앞으로는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같은 반도체부문 집중투자로 내년 매출목표 총 3,100억원 중 57%에 달하는 1,750억원을 반도체부문에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ILD P 시판

해태전자 (주)

해태전자는 국내 전자업체로는 처음으로 ILDP(대화형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를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LDP는 LDP(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PC를 연결, LDP를 통해 영상과 음악을 보고 들을 수 있을뿐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PC를 통해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는 대화형 멀티미디어제품이다.

동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제품의 개발에 나서 50억원의 비용을 들여 21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의 멀티미디어제품인 CD-ROM과 CDG(컴팩트 디스크 그래픽)가 정지화상만을 재생할 수 있을뿐 아니라 화면의 선명도가 뛰어나고 여기에 컴퓨터기능과 오디오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해태전자는 이 제품이 산업용 교육용 군사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할뿐 아니라 각종 안내방송매체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정용AV(오디오비디오)시장과 컴퓨터시장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정부에 컴퓨터용

모니터 대량납품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는 최근 미국 정부조달청(GSA :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에 컴퓨터용 모니터(모델명 : HCM-433E) 대규모 납품을 시작했다.

이번 납품은 미국 GSA로부터 미국 국방부 공군기지에 설치할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단일 납품물량으로 초유의 규모인데, 이번달말

업·계·소·식

5만대까지 납품에 들어가며 향후 2년간 25만대를 납품, 총 30만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이번 납품물량은 미국내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전세계 미공군기지에 설치될 모니터로 동사는 자사의 브랜드로 납품하는데 따른 기업이미지 제고 나아가 국위선양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납품에 들어가는 HCM-433E 14인치 칼라 모니터는 순차 주사(Non-Interaced)방식으로 화면의 떨림을 방지, 근접작업시에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1024X 768픽셀(Pixels)의 고해상도와 0.28mm의 평면 브라운관을 채택, 해상도 및 선명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호환성, 사용에 편리한 조정단자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보기기부문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가획득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는 최근 독일 라인란트 기술검사협회(TUV-Rheinland)로부터 정보기기부문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가획득으로 독일지역에 수출하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모뎀, 팩스 등의 정보기기 제품의 안전규격 시험을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 규격승인을 위해 기존에 6개월정도 소요되던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공인 시험기관이란 독일 라인란트 기술검사 협회가 철저한 공장실사를 통해 각종 시험검사 설비 및 시험능력이 국제공인 시험소 자격요건(EN 45001)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조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자체시험 인증제도다.

동사는 이번에 독일기술 검사협회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인가를 받음으로서 미국(UL-CPDP, FCC), 캐나다(CSA-CCP), 일본(VCCI), 노르웨이(NEMKO-TBM), 덴마크(DEMKO-CTBM), 스웨덴(SEMKO-SMTA) 등의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운용해오던 자체시험 인증제도를 포함, 지금까지 안전(Safety) 및 전자파(EMI)분야의 총 12개의 국제 공인시험소를 운용하게 되었다.